

### 브루나이의 한류 현상

김예겸 부원장(HK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 ■ 주요 내용

- 브루나이 한류(Korean Wave) 현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시화되고,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강화됨.
- 브루나이 한류 현상의 중심에는 한-아세안 교류의 확대 및 2010년 방송교류협정이 있음.
- 한-아세안 교류의 강화 및 브루나이 ICT 환경의 개선은 당분간 브루나이의 한류 현상을 가속화할 전망

## 1

## 이슈 현황

☒ **브루나이 한류(Korean Wave) 현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시화되고,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강화됨.**

- 한류 현상은 다각적인 사회문화 및 경제적인 현상으로,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이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브루나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류 현상이 가시적으로 진행되었고,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함.
  - 브루나이 한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취향(taste)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 제품, 문화 및 언어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음.
- 2009년 12월에 조사된 자료 (Kim 2010: 43)에 의하면, 브루나이 사람들이 주변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갖은 국가는 호주(28.2%), 일본(26.7%), 한국(26.5%) 순이었음.
  - 아시아 주변국 중 방문 희망국으로는 호주(27.2%), 한국(26.5%), 일본(2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0~20대의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임.
  - 이와 관련된 한류의 좋은 예는 2006년 브루나이 국립대학교(Universitas Brunei Darussalam)에 생긴 Korean Culture Club(KCC)로, 브루나이 국립대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언어, 음식, 음악, 영화 및 예술 등을 익히고 전파하는 역할을 함.
  - 브루나이 30대와 40대는 호주(평균 33.4%), 일본(평균 28.7%)을 주변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국가로 선택함.
  - 반면 50대는 호주(36.6%), 한국(23.7%)을 주변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국가로 지목함. 60대 이상은 호주(33.1%), 중국(26.6%) 순으로 주변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국가로 지목한 반면, 10대와 20대 연령층은 한국(평균 34.5%), 일본(평균 32%)을 주변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국가로 지목함.
  - 또한, 30대~50대 연령층은 호주(평균 33.8%), 일본(평균 24.8%)을 주변 국가 중 방문희망 국가로 지목했고, 60대 이상은 호주(31.7%), 중국(26%)을 주변 국가 중 방문희망 국가로 지목한 반면, 10대와 20대 연령층은 한국(평균 35.3%), 일본(평균 32.6%)을 주변 국가 방문희망 국가로 지목함.
  - 남성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주변 국가는 일본(32%), 호주(28.1%), 한국(22.4%), 중국(14.8%), 인도(2.6%)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주변 국가는 한국(32.8%), 호주

(31%), 일본(24.1%), 중국(9.9%), 인도(2.2%) 순으로 나타남. 또한 남성은 주로 호주(30.7%), 일본(29.2%), 한국(21%), 중국(15.9%), 인도(3.2%) 순의 방문 희망국 선호도를 보인 반면 여성은 주로 한국(34.2%), 호주(26.4%), 일본(13%), 중국(11.7%), 인도(2.3%) 순의 희망방문국 선호도를 보여줌.

-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브루나이 한류 현상은 한국을 방문하는 브루나이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에도 일조하고 있음.

표 1. 한국을 방문한 브루나이 관광객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브루나이 관광객 수	1,268	1,434	2,070	2,188	2,031	2,345	2,600 (10월 까지 통계: 2,107)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 2 원인과 분석

▶ 브루나이 한류 현상의 중심에는 한-아세안 교류의 확대 및 2010년 방송교류협정이 있음.

- 1960년대 초반 이후의 브루나이와 한국의 조우
  - 브루나이와 한국 간의 사회문화적 접촉은 1960년대 초반 한국 이민자들이 브루나이에 정착하고, 이후 1967년 1월 5일 브루나이에 한국인협회(Korean Community Association)가 설립되면서 시작됨.
  - 최초의 한국인 이주민은 1960년대 초반에 말레이시아 미리(Miri) 지역에서 브루나리로 이주한 벌목 및 목재업 종사자들이었고, 1960년대의 자동차 정비공들, 1970년대 주로 양계업 종사자가 이주하였고, 1980년대 진행된 대규모 건설사업 때문에 한국인 이주민은 500여 명으로 증가하였음.
- 1990년대 후반 이후 브루나이와 한국 간의 접촉이 교역, 관광, 건설 및 스포츠 영역 등으로 확장되고 다양해지면서 한류 현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함.

- 2003년 7월 30일 브루나이와 한국 양자 간 항공협정(국제협약 제1647)이 발효되었으나 중단됨.
  - 브루나이 국영 항공사(Royal Brunei Airlines)의 전세기가 2005년 7월 30일 첫 직항노선으로 취항하였으나 끝내 해당 취항이 중단됨.
  -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브루나이 국영 항공사의 한국 직항노선 취항은 당시 양국 간의 교류증진 필요성을 반영한 시도였으나, 궁극적인 한류 현상의 강화에는 성공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함.
- 그러나 2009년 3월 13일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가 설립된 이후 양국 간의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면서 증가하는 양국 상호 간 교류의 대중적 노출은 브루나이 한류 현상 강화에 주요하게 기여함.
- 또한 2010년 4월 브루나이 국영방송(RTB)과 아리랑 TV 간에 방송교류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 드라마, 영화, 언어, 패션 등이 브루나이 대중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브루나이 한류 현상의 주요한 분기점이 됨.
- 이러한 추세는 2004년에서 2016년 12월 사이의 기간을 대상으로 Google 검색어 'Korea'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도 잘 나타남.
  - 2009년 이후로 브루나이 지역의 Google 검색어 'Korea'에 대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검색어 'Korea'와 'Brunei'는 전 세계 국가 중 6번째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줌.
  -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Google 검색어 'Korea'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2004~2016)에 의하면, 검색어 'Korea'는 브루나이지역의 한류 현상과 주목할 만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Google 검색어 'Korea'에 대한 빅데이터분석 (2004~2016)

관련주제	인기	관련 검색어	인기
대한민국 (동아시아의 국가)	100	South Korea	100
한국 (나라)	20	North Korea	55
한국어	15	Korean Drama	30
한국 TV 드라마	15	Korea University	20
예술가 (직업)	5	Busan Korea	5

자료출처: Google Trend

### 3 전망과 시사점

#### ☒ 한-아세안 교류의 강화 및 브루나이 ICT 환경의 개선은 당분간 브루나이의 한류 현상을 가속화할 전망

- 2009년 3월 13일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 설립으로 인한 브루나이와 한국 간의 교류증가는 브루나이 한류 현상에도 기여함.
  - 2017년에는 아세안(ASEAN)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Year of ASEAN-Korea Cultural Exchange)로 지정하는 한편, 2017년 하반기에 아세안문화원(ASEAN Culture House)이 개원할 예정임.
  - 따라서 한-아세안 교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브루나이 한류 현상의 지속적인 강화로 이어질 전망
- 2010년 4월 브루나이 국영방송(RTB)과 아리랑 TV 간에 체결된 방송교류협정으로 브루나이 대중매체에 의한 한류의 확산은 주요한 분기점을 맞이함.
  - 최근 인터넷 대중적 보급 및 이동통신수단의 진보는 한류의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그러나 브루나이의 자체적인 대중문화 콘텐츠의 강화, 이슬람 문화보호주의, 치열해지는 글로벌한 대중매체 산업의 경쟁 구도 등은 브루나이 한류의 잠재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양질의 '브루나이 친화적인(Brunei-friendly)' 한류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EMERiCs**

#### 출처

- Kim, Yekyoum (2010) 'Bruneian Perception of Korea.' *A Comprehensive Survey 2008-2010 on Southeast Asian Perceptions of Korea*. Seoul: MyungIn Publishers. pp. 29-73.
- Google Trend ([www.google.com/trends](http://www.google.com/trends))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kto.visitkorea.or.kr](http://kto.visitkorea.or.kr))